

프랑스어에 나타난 휴지현상과 억양의 관계에 대하여

고 영 립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Effects of pause on intonation variation in French language

Younglim KO

Ewha Woman's University

koylim@hanimail.com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ifferent types of pauses in French language - silent pauses and filled pauses -, focussing on their distribution and duration in utterances from a radio interview. Pauses combined with intonation which precede and succeed influence the variability of intonation patterns: initial rising and penultima rising of French intonation. These two patterns characterize contemporary French, specially in face-to-face situation.

해오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낭독체 담화를 대상으로 무성 휴지-호흡 휴지 및 문장 구성 성분 층위 표시 휴지-의 역할을 해석하던 한계를 벗어나 실제 구어 담화에서 실현된 담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성 휴지까지 다룸으로써¹⁾ 구어의 휴지현상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낭독체 담화가 아닌 화자간 직접적 접촉에 의한 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자연스런 표현의지가 언어외적인 변수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무성 휴지와 유성 휴지의 분포 양상과 음성적 실현을 파악함으로써 현대 프랑스어의 휴지 현상의 언어적 기능과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프랑스어의 운율에서 억양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휴지 현상은 구어를 이루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분명 휴지 현상이 운율의 일부이면서 운율의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낭독체 담화에 한정하여 분석, 기술

II. 연구 목표

휴지 현상에서도 무성 휴지를 중심으로 시간성 변수의 하나로 한정하여 리듬 생성요소로 다루어오던 시각을 벗어나 휴지 현상이 준 언어 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발적이지 않은 그러나 한 화

1) Grosjean, F. & Deschamp, A. (1972), (1973).

자의 언술 구성에 필요한 변수로 고찰하려한다. 사실 무성 휴지의 경우 동음으로 이루어진 두 문장의 의미 변별과 한 문장 구성 성분간 경계 구분을 주요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는 문어에서 출발하여 얻은 결과에 한정된다. 반면 두 화자간의 대화 상황에서는 무성 휴지와 유성 휴지가 호흡 한계에 의해 또는 인코딩의 지연에 의해 또는 화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다양한 양상과 분포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이 변이성을 관찰하여 각 양상들을 분류하고 그 음성적 실체를 기술하는 한편 의미단위인 억양의 실현 조건의 하나로 전제하여 구어를 이루는 운율 요소간의 상호 작용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한 언술의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운율변수간의 매개작용이 나타나는지 기술하려한다.

III. 연구 대상

프랑스 현지 라디오 방송 France-Culture의 30분 분량의 대담 프로그램을 녹음, 분석하였다. 라디오 대담을 선택한 것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화자들이 일반 화자들보다 녹음실에서 느끼는 부자연스러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고려한 것이다. 대담 진행자와 초청 인사, 이 두 화자의 대화는 잠계적 다수의 청취자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담화가 구성되며 토론이나 일상적 대화와는 다르게 일정한 길이의 무성 휴지를 두어 화자간의 말 겹침을 피하고 두 화자는 라디오 대담이 요구하는 상황 규칙²⁾에 맞추어 대화를 진행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낭독체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 머뭇거림이나 단어 반복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구어 고유의 현상으로 연쇄적으로 실현되는 언술 사이에 무성 휴지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언술 내 그리고 언술 사이에 무성 휴지, 유성휴지가 불규칙하게 배열된다. 과연 이 현상들 속에 일련의 규칙성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화자가 그 분포를 조절하는지 분석하려한다. 대담 초청인사의 담화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분석 방법으로는 PCquirer version 4.5를 이용하였다.

2) P.Chareaudeau (1984) 참조.

IV. 분석 결과

1. 휴지의 유형과 특징

1.1. 무성 휴지

1.1.1. 호흡 무성 휴지

연속되는 두 언술 또는 두 절 사이에 놓일 수도 있으나 등위관계의 연속되는 두 언술 또는 두 절에서 후속 언술 또는 후속 절의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놓일 수 있다. 종속 관계에 있는 연속되는 두 절의 경우에도 후속 절의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호흡휴지의 길이는 최소 190ms에서 최대 890ms까지 실현되었고, 길이별 분포는 200ms이하는 1.3%, 201ms-300ms는 17.7%, 301ms-400ms는 28.9%, 401ms-500ms는 25%, 501ms-600ms는 13.8%, 601ms-700ms는 4.3%, 800ms이상은 1.3%의 결과를 보이고있다. 301ms에서 500ms까지의 호흡 휴지가 53.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2. 비 호흡 무성휴지

비 호흡 무성휴지는 인코딩의 지연에 의해서 생기거나 언술 내 특정 어휘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형용사와 부사 앞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길이별 분포는 201ms-300ms는 44.8%, 301ms-400ms는 26%, 401ms-500ms는 13.5%, 501ms-600ms는 5.2%, 601ms-700ms는 6.3%, 701ms-800ms는 4.2%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호흡휴지가 301ms-500ms에서 53.9% 실현되는 것과 달리 비 호흡 무성휴지는 201ms-300ms 사이에서 45% 정도가 실현되고 있다. 특정 어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의 비 호흡 무성휴지는 401ms-500ms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1.2. 유성휴지

유성휴지는 화자의 언술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나 상대 화자에게 자신의 언술이 지속됨을 알리는 도구이기도하다. 유성휴지의 Fo는 화자가 결론형 억양의 마지막 음절에서 이용하는 낮은 높이이다.

1.2.1. 모음 연장형

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등 등 1음절로 이루어진 문법소의 모음 연장형("euh:", "deuh:",

“queuh:”)은 최소 270ms에서 최대 1070ms까지 실현된다.

1.2.2. 반복 더듬이형

이 유형 역시 1음절로 이루어진 문법소의 반복 발화에 의한 유성휴지의 한 유형으로 모음 연장형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de de deuh:”).

2. 무성 휴지와 인접 억양과의 관계

무성 휴지는 단순히 발화의 일시적인 정지가 아닌 화자의 운율 전략의 일부로 사용되어 후속 억양과의 결합에 의한 표현.

2.1. 무성 휴지 + 도입부 강세 억양

특정 어휘를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로 무성휴지와 도입부에 강세 액센트의 개입에 의한 억양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무성 휴지 후속 억양의 첫 음절의 Fo는 도입부가 강세 되지 않은 억양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상승한 높이에서 실현되고 무성 휴지가 주는 긴장 효과와 함께 상대방화자에 대한 표현 강도의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된다.

예1) 무성휴지 + “*simplement du fait*”

175Hz 165Hz 215Hz 145Hz 225Hz

2.2. 억양 끝 음절의 길이 + 후속 무성 휴지의 길이

한 의미단위(구, 절)를 한정하는 억양의 마지막 음절과 후속 무성 휴지는 유사한 길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2) “*les questions de réflexion*” + 무성휴지

340ms = 300ms

3. 유성 휴지와 인접 억양의 관계

유성 휴지에 의해 발화가 지연되고 화자는 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강세 효과를 주고 따라서 후속 억양의 형태에 변화를 주게 된다.

3.1. 유성 휴지 + 도입부 강세 억양

모음 연장형 유성휴지에 이어 실현되는 억양에서 첫 음절 액센트 개입에 의한 억양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예3) “*euh: il y a un problème*”

115Hz 185Hz 120Hz

3.2. 유성 휴지 + 상승부 강세 억양

모음 연장형 유성휴지를 잇는 억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마지막 음절 이전에 미리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런 억양 형태의 변화는 유성휴지에 의한 잉여적인 시간과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로 운율적 재구성이라 볼 수 있다.

예4) “*euh: mais mais: effectivement*”

100Hz 175Hz 190Hz

V. 맺음말

현대 프랑스어의 휴지현상을 라디오 대담 상황에 한정하여 무성휴지와 유성휴지로 구분하여 그 유형, 길이 그리고 전후 억양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무성 휴지와 유성 휴지에 이어 실현되는 상승 억양은 첫 음절 액센트의 개입에 의한 도입부 강세 형태 또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상승에 의한 상승부 강세 형태로 나타난다. 이 두 억양 형태는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성이 배제된 비강세 형태에서 드러나지 않는 현상으로 특히 프랑스어 대화 상황에서 실현된 구어 담화를 특징짓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휴지 현상을 억양 패턴이 실현되는 음성적 맥락으로 봄으로써 현대 프랑스어의 구어에서 실현되는 빈도가 높은 이 두 억양 패턴을 통하여 화자의 전언 의지와 구어 담화의 구성을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한 화자가 구축하는 담화의 운율 변수간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휴지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Cazanave-Delyfer (1988) “Phénomènes de pause”, *Revue de Phonétique Appliquée*, 87-88-89. 223-246.
2. Charaudeau, P. (1984), “Description d’un genre: interview”, *Aspects du discours radiophonique*, dir. P. Charaudeau, Didier-Erudition, 111-115.
3. Davis, R. & Léon, P. (1989), “Pausologie et production linguistique”, *Information / Communication*, 31-43.
4. Duez, D. (1982) “Silent and non-silent

- pauses in three speech styles", *Language and Speech*, 25, 11-28.
5. Duez, D. (1991) *La pause dans la parole de l'homme politique*, Editions du CNRS.
 6. Goldman-Eisler, F. (1968) *Psycholinguistics : Experiments in Spontaneous Speech*, London, Academic Press.
 7. Goldman-Eisler, F. (1972) "Pauses, clauses, sentences", *Language and Speech*, 15, 103-113.
 8. Grosjean, F. & Collins, M. (1979) "Breathing, pausing and reading", *Phonetica*, 36, 98-114.
 9. Grosjean, F. & Deschamps, A. (1972) "Analyse des variables temporelles du français spontané", *Phonetica*, 26, 129-156.
 10. Grosjean, F. & Deschamps, A. (1973) "Analyse des variables temporelles du français spontané: II Comparaison du français oral dans la description avec l'anglais (description) et avec le français (interview)", *Phonetica*, 28, 191-226.